



3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조속 제정하라"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음 3월 11일) 제3963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인파 가득 2026 전주 이팝나무 축제



2026 전주 이팝나무 축제가 한창인 지난 25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 옆 철길을 찾은 시민들로 일대가 북적이고 있다.



남원 광한루 전경.

(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 광한루 '국보' 된다

국가유산청서 지정 예고... 역사·문화사적 가치 '탁월'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남원 광한루(南原 廣漢樓)'를 국가지정 문화유산 국보로 지난 24일 지정 예고했다.

남원 광한루는 조선 후기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관영누각(官營樓閣)으로, '호남제일루(湖南第一樓)'라 불린다.

조선 초기 명재상 황희(黃喜, 1368~1452)가 남원에 유배되어 세운 광통루(廣通樓)가 기원으로, 관리들의 연회(宴會)와 시회(詩會)가 열리던 곳이었으며, 주변의 호수와 3개의 섬(봉래, 방장, 영주), 그리고 오작교는 전라도 관찰사 송강 정철(鄭澈, 1536~1593)과 남원부사 장의국에 의해 축조되었다.

이후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으로 소실되었다가 1626년(인조 4)에 남원부사 신감(申鑑, 1570~1631)이 지금과 같은 규모로 중건(重建)했고,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섬 지역의 장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51억원 규모의 섬 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전체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 섬 특성화, 생활 인프라 구축의 3개 축으로 구성된다.

기반시설 분야에는 군산 명도~방축도 탐방로 조성을 비롯해 신시도 대가산 트레킹코스 개발 등 총 9개 사업이 추진된다.

생활밀착형 인프라에는 군산 연도와 부안 식도에 LPG 공급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가 전주성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꺾고 3경기 무승에서 탈출했다.

전북은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2026 10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강상윤의 결승골로 포항에 3-2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최근 3경기 무승(1무 2패)을 끌어낸 전북은 4승 3무 3패(승점 15)를 기록, 3위로 올라섰다.

반면 지난 22일 광주FC를 1-0으로 누르고 2연패를 끊었던 포항은 연승에 실패하며 7위(3승 3무 4패·승점 12)에 머물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섬 지역의 장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51억원 규모의 섬 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전체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 섬 특성화, 생활 인프라 구축의 3개 축으로 구성된다.

기반시설 분야에는 군산 명도~방축도 탐방로 조성을 비롯해 신시도 대가산 트레킹코스 개발 등 총 9개 사업이 추진된다.

생활밀착형 인프라에는 군산 연도와 부안 식도에 LPG 공급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 'AI 혁신 스마트도시'로 도약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
국토부 최종 승인·공고
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
AI 통합 도시관리플랫폼
피지컬 AI 활용 서비스 등
2030년까지 추진키로

로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글로벌기업 협업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도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AI혁신 스마트도시 새만금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중립 기반 생태계 구축 △AI통합 도시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피지컬 AI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서비스 확대 △기반서비스 구축 등 4대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연계한 로봇 제조, 인공지능(AD)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D)수소시티 등 전략 분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새만금 전역을 스마트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국내 유일의 AI 스마트도시 테스트 베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스

마트도시계획의 핵심 거점인 선도지구로 조성하고, 이곳에서 검증된 모델을 새만금 전역으로 확산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서비스는 재난 안전, 환경 시설 관리 등 도시 운영 전반에 필요한 18개 기본 서비스와 글로벌 기업 협업으로 발굴한 12개 첨단 특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AI 기반의 미래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지점"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 수변도시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1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도, 올해 섬 사업 51억원 투입
정주·관광·소득 기반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섬 지역의 장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51억원 규모의 섬 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전체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 섬 특성화, 생활 인프라 구축의 3개 축으로 구성된다.

기반시설 분야에는 군산 명도~방축도 탐방로 조성을 비롯해 신시도 대가산 트레킹코스 개발 등 총 9개 사업이 추진된다.

생활밀착형 인프라에는 군산 연도와 부안 식도에 LPG 공급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새만금을 미래형 첨단 AI 스마트도시로 본격 조성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년)'을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난 2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혁신 도시

K리그1 전북현대, 포항 3-2 꺾어... 현재 3위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가 전주성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꺾고 3경기 무승에서 탈출했다.

전북은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2026 10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강상윤의 결승골로 포항에 3-2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최근 3경기 무승(1무 2패)을 끌어낸 전북은 4승 3무 3패(승점 15)를 기록, 3위로 올라섰다.

반면 지난 22일 광주FC를 1-0으로 누르고 2연패를 끊었던 포항은 연승에 실패하며 7위(3승 3무 4패·승점 12)에 머물렀다.

/뉴시스

Great Iksan

2026
사람이 피어나는 2026 봄 페스타!

익산 서동축제

5월 1일 - 5월 3일

신흥근린공원 (중앙체육공원)

익산문화관광재단